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382장** ····· **다같이**

1.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2. 어려워 낙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3. 더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4.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요한계시록 4:1-2, 19:5-6** ····· **인도자**

4: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4:2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19:5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19:6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설 교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 **설교자/다같이**

* 설교자의 대표기도 또는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1)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나라와 개인이 회복하도록

2)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계시록 4:1-2,19:5-6)

사도 요한의 생애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집권한 뒤 로마제국 전역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금과 은으로 자기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로마제국에 세워 놓고, 강압적으로 자기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라는 칭호를 받지 않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도미티안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물건을 못 팔고, 못 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앗고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 남쪽은 사막이고, 북쪽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영하 40~50도의 툰드라 기후입니다. 추방명령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계 4:1). 그리고 보여준 환상이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계 4:2).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도 환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와 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시 121:4),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며(시 121:7),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고백합니다(시 121:8).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당할 때 모든 환란에서 면하게 하실 수 있는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바라보라’는 말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라는 말입니다(시 34:8). 언제까지 목사들의 설교만 듣고 여호와를 믿는다고, 안다고 착각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환란을 당한 사도 요한과 교회에게 하나님 자신을 찬송하라고 명령하십니다(계 19:5).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계 19:6). 도미티안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도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